

서경태 | IAEA 핵물질보장조치 사찰관



보안 Security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희망과 설렘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작년부터 불어닥친 경기 침체와 올해에는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 더욱 우울해지는 것 같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경비 절감과 구조 조정이라는 말들을 쉽게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하여 들려오는 친구의 한숨소리는 실제로는 경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준다.

이렇듯 살기가 어렵다보니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 공장, 식당, 가게 등 사업체, 그리고 나라 살림을 이끄는 정부에서도 경비 절감을 위해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듯 “변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변화를 꾀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보안(Security) 관련 산업도 있다.

하지만 보안 관련 산업은 경기 불황에 맞추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변화가 아니라 도리어 허리띠를 늘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부쩍 보안이 강화된 VIC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안 체계가 올해 벽두부터 확 바뀌었다. 실제로는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바뀌었지만, 그 동안은 사찰 관련 부서부터 보안이 강화되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크게 의식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UN 산하 국제 기구가 입주해 있는 VIC (Vienna International Centre)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보로 출입을 하는 사람들



“변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변화를 피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보안(Security) 관련 산업도 있다. 하지만 보안 관련 산업은 경기 불황에 맞추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변화가 아니라 도리어 허리띠를 늘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도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을 공항 검색대에서와 같은 수준의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검사를 위해 검색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보안 요원의 수를 대폭 늘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도보로 출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안 검색시에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다.

UN 산하 국제 기구에는 정식 직원이 있고 회원국에서 파견한 파견 직원이 있다. 정식 직원은 말 그대로 국제 기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국제 기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정규 직원이다.

반면에 파견 직원은 국제 기구의 업무 지원을 위해 회원국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인데 급여는 국제 기구가 지불하지 않고 회원국이 부담한다. 그래서 이들을 Cost Free Expert라고 부르며 비정규 직원이다.

하지만 Cost Free Expert라고 해서 모두가 다 비정규 직원은 아니다. Cost Free Expert 중에서도 어떤 전문가는 국제 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와 그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온 후, 국제 기구에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국제 기구에서 받는다. 그래서 국제 기구에서는 급여를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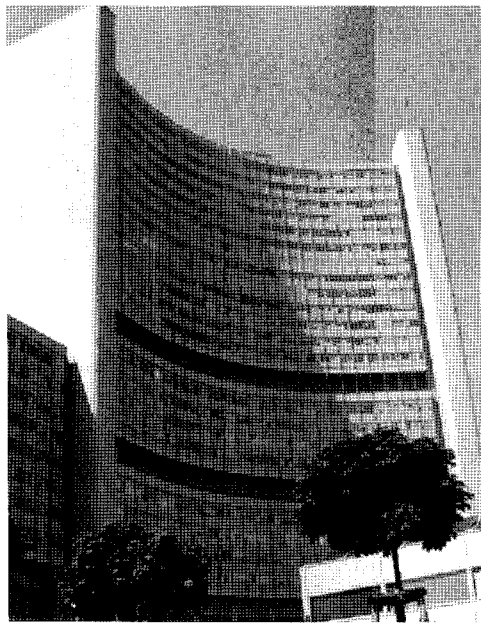
그런데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도보로 출입을 할 때에 차이가 난다. 정규직은 출입증만 확인하지만 비정규직은 출입증 확인 외에 소지품 검사를 위해 X-ray 탐지기가 설치된 별도 컨테이너 박스를 통과해야 한다. 서로 비슷한 일을 하고 같은 계약직이면서도 급여를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들은 국제 기구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애사심이 강해서 위험물을 소지하지 않고 비정규직들은 국제기구에서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물을 소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이다. 비정규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을 할 때에는 정규 직원과 같은 수준의 검색을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더욱 가관인 경우가 있다. 부부가 같이 출입을 할 경우이다. 부부 중 직원인 배우자는 출입증 검사만 하지만, 직원이 아닌 남편 또는 부인은 별도 검색대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보안은 부부, 가족 사이도 믿을 수 없게 만드나 보다.

VIC를 끼고 도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이름이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이름을 따서 레오날드 번슈타인 거리이다. 이 길에는 대형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우리나라의 육교와 흡사하게 생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콘크리트 차단물이 설치되어 있다. 폭탄을 실은 대형 차량의 통과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초기에는 이런 장치가 설치된 줄 알지 못했던 대형 차량들이 밤중에 사고를 당했다. 대형 차량의 운전석이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의 큰 사고도 있었다. 비엔나에서 이 정도의 구조물을 설



VIC건물



IAEA이사회

올해 1월 1일부터 UN 산하 국제 기구가 입주해 있는 VIC (Vienna International Centre)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보로 출입을 하는 사람들도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은 공항 검색대에서도 같은 수준의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레오날드 번슈타인 거리에는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로의 양쪽 끝에 설치되어 있고, 도로를 따라서는 담장이 쳐져 있다. 100여 미터 거리의 담장에는 10미터 간격으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눈에도 과잉 투자로 보인다.

엄격한 IAEA 사찰부서의 보안

필자가 소속된 사찰운영부서와 사찰지원부서는 각 층이 유리문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곳은 사찰 관련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정규직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게 차단된 것이다.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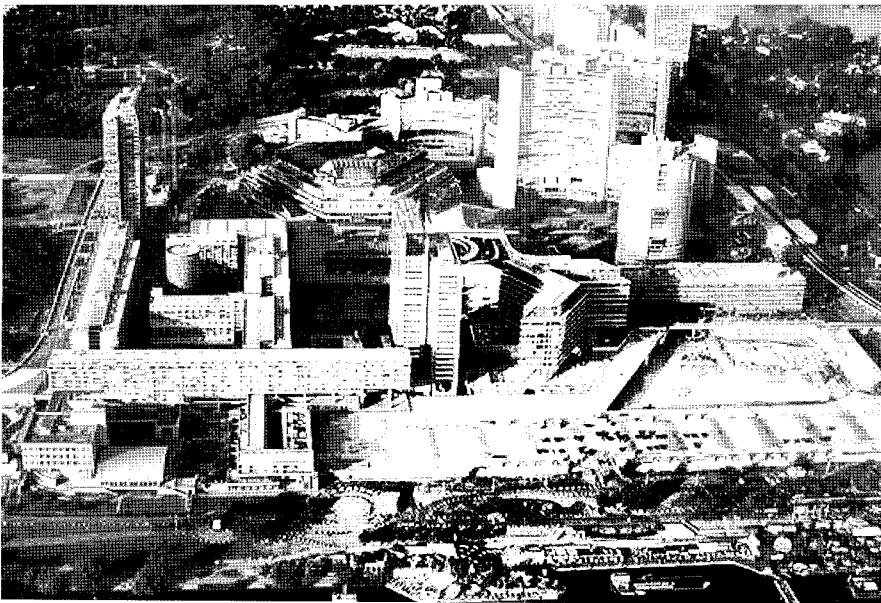
유리문에 시건 장치만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문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 또한 달려 있다. 이중 삼중의 보안 장치이다. 몇 년 전 필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 보안 서약을 했다. 보안의 유출 시에는 은퇴 후에도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이었다. 보안의 유출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사실 이란이나 이라크 그리고 북한에서 사건이 생기면 대사관이나 한국 정부에서 사람들이 찾아 오곤 한다. 물론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자기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아는 것이 없으니 알려줄 것도 없다.

요새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그들은 정보가 내부에서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총장이나 사무부총장 등 고위층을 찾아간다. 그곳에서나 조금 얻어 들을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필자가 원자력 전문 매체인 <원자력산업>지에 사찰관의 신분으로 사찰 관련 내용을 쓸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필자도 필자가 속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생기는 주요한 일들을 <타임>지나 <뉴스위크>지에서 찾아볼 때가 많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인터넷이나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공개 자료를 대부분 모니터링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원자력산업>지도 모니터링 되고 있다. 이 작업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채용되어 일하고 있으며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한국에서 온 과전 직원들과 점심 식사 후 그들이 검색대를 통과하기를 기다리며 검색대가 설치되어



VIC 주변풍경

옛말에 이웃에게 잘 못하면 집으로 돌이 날아 들어온다고 했다. 아무리 담장을 높여도 날아오는 돌을 막을 수는 없다. 돌이 날아오는 것이 두려우면 돌이 날아올 짓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과연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보고 있는데, 불현듯 교황이 이동할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교황이 이동할 때에는 방탄유리로 만든 상자로 보호하고 그 안에서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신자들과 구경꾼들을 위해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 과연 그의 축성이 방탄유리를 통과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 교황은 신에게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인간이다.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여 방탄유리로 만든 상자로 보호를 받아야만 할까?

필자의 의문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교황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교황이 이교도에 의해 위해를 당했을 때에는 또다시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교황이 이교도에 의해 위해를 당했을 때, 생명을 잃거나 전쟁이 나는 것 또한 신의 뜻이 아닐까? 글의 비약이 조금 심해진 것 같다.

'Civil Servant'의 정신

국제연합의 기본 정신은 평화를 지키고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도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의 비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무기의 공포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핵에너지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 기구의 주인은 회원국이다. 회원국의 지원금 없이는 하루도 유지해 나갈 수 없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기구가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고 있다. 인류에게 평화를 전파해야 할 사람들이 높은 담장을 치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있다.

주인들을 위하여 일해야 할 하인들이 주인들에 대해 편가르기를 하고 등을 돌리려 하고 있다(국제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Civil Servant'라고 부른다. 하지만, 하인이란 의미의 Servant는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하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원국들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 생각이다.).

옛말에 이웃에게 잘 못하면 집으로 돌이 날아 들어온다고 했다. 아무리 담장을 높여도 날아오는 돌을 막을 수는 없다. 돌이 날아오는 것이 두려우면 돌이 날아올 짓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과연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